



제10회 HDI 인간경영대상

2024년 12월 17일(화) 17:00~20:00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 2층 샴페인홀

제10회 **HDI** 인간경영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Better people better world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HDI 인간개발연구원은 2015년부터 창립 이념인 '인간중심'의 경영 철학을 실천하는
훌륭한 기업 및 기관의 최고경영자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산업계는 물론 국가 전반적으로 훌륭한 경영자의 사례를 통해 배우고,
동시에 인간중심의 사회와 조직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인간경영대상 수상자들을 축하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12월 17일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오종남**
미래성장위원회 위원장 **두상달**

기업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축입니다.

그리고 인간중심의 경영철학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토대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경영은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는 곧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HDI 인간경영대상]은 이러한 인간중심의 경영철학을 실천하는 훌륭한 기업과 기관의
최고경영자를 매년 발굴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수상자들은 기업의 본질인 경영의 축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인재 양성과 사회 공헌,
상생과 협력의 모델을 실천하면서 인간 중심의 사회 발전에 기여한 분들입니다.

심사위원회는 후보로 추천된 다양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본 상의 취지에 맞는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수상자 모든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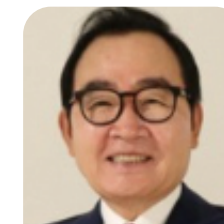
2024년 12월 17일
심사위원 일동

심사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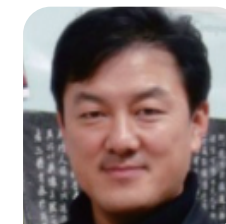


권오현
서울대학교 이사장

심사위원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최재봉
성균관대학교 부총장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오종남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두상달
미래성장위원회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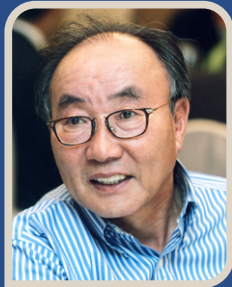
이상욱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제10회 HDI인간경영대상 수상자

◆ 인재교육부문



김은선
보령홀딩스 회장



조상호
나남출판사 회장

◆ 창조혁신부문



우영미
썸리드 대표



최재빈
넥스트온 대표

◆ 상생지속부문



김기용
에그리치글로벌 회장



박종복
SC제일 은행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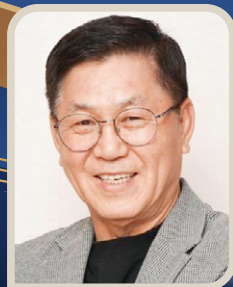


윤기
윤학자공생재단 회장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

◆ 글로벌경영



송창근
KMK글로벌스포츠킴
회장



유신일
한국산업양행
회장

◆ 특별상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문훈숙
유니버설발레단
단장



허영만
화백

2024 HDI인간경영대상 시상식

일시 2024. 12. 17. (화) 17:00~20:00

장소 노보텔 엠배서더 서울 강남 2층 샴페인홀

시간	식순	내용 및 비고
17:00~17:15	영상	인간경영대상 History
	개회	정찬우 아나운서
	국민의례	전체
	개회사	오종남 HDI 회장
	심사총평	심사위원회
	축사	두상달 미래성장위원회 위원장
17:15~18:00	인간경영대상 시상식	수상자·시상자
	수상 소감	각 수상자
18:00~19:00	멘토대학 후원 수상 축하·송년 음악회	[Classic content] 감미로운 오페라가 아름다운 발레를 만나다
19:00~20:00	만찬	전체
20:00	폐회	-



» 김은선
보령홀딩스 회장

BORYUNG

- 2024. 05. (주)코엑스 사외이사
- 2023. 06. 한국세포주연구재단 이사
- 2019. 01. 보령홀딩스 회장
- 2018 ~ 202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
- 2016. 09.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부회장
- 2013. 02. 주한에콰도르 명예영사
- 2012. 04.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 2010 ~ 2014. APSMI 부의장/회장 (아시아태평양셀프메디케이션협회)
- 2009 ~ 2012.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이사장
- 2009. 01. (주)보령 회장
- 2001. 01. 보령그룹 부회장
- 1997. 03. (주)보령 비서실장

보령은 '인류건강에 기여하겠다'는 사명으로 1957년 종로5가에 창업한 보령약국에서 시작됐다. 이를 바탕으로 1963년 보령제약을 설립해 우수한 의약품들을 국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기업명인 '보령'은 지킬 보(保), 안녕 령(寧)이라는 뜻처럼 사람의 안녕을 지키고 가꾸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김은선 회장은 1986년 보령제약에 입사, 주요 제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 수립을 주도하며 용각산, 겔포스 등을 국민의약품으로 성장시켰다. 2000년에는 전략기획실 사장을 맡아 그룹 혁신을 리딩하며 경영 전반에 전략적 마인드를 정착시키고, 2001년에는 그룹 부회장으로 neo21, inno-BR 등 혁신활동을 진두지휘하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이후, '창조적 기업문화' 육성을 위해 2001년부터 20여년간 매달 직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Bravo Cafe를 진행하며 기업 혁신 창구로 자리잡게 했다. 또한, 2005년부터 생산본부만의 특성을 감안한 생산성 제고 활동인 BPI (BORYUNG Product Innovation)팀을 발족·운영하며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주도했다.

무엇보다, 보령이 개발한 국내최초 고혈압 신약 '카나브' 발매 이후, 김은선 회장은 임상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증거 기반 마케팅을 선언하고 시장조사팀과 교육팀을 강화하는 한편, 카나브에 특화된 조직을 구축하고 영업사원 교육에 집중하며 발매 후 누적 매출액 1조원을 달성시키며 고혈압 환자 치료성과를 향상시켰고, 대한민국 대표 신약으로 자리잡게 했다. 또한, 글로벌사업부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국산 신약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데 초석을 다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제약산업 위상제고 및 일반약 발전을 위해 2009년부터 한국제약협회 부이사장, APSMI(아시아태평양셀프메디케이션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한국 제약산업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했을 뿐 아니라,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제약산업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아시아 대중약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더불어 지역 우수인재의 육성과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산학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005년부터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학생 중 매년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과 여성 인재에 대한 관심도 놓치지 않았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식개선과 고용확대를 위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모델을 개발하고, 장애인 전담인력 및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사내 사이버 아카데미 수강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청년과 여성 인재의 사회참여 기회도 넓혀주고 있다. 최근 보령의 신규 입사자 90%가 청년이며, 이중 여성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일과 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켜 경력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령은 이러한 공로로 '2020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2023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도 받았다.



» 조상호
나남출판사 회장

나남
nanim

- 2012 ~ 2015. 세종문화회관 이사
- 2011 ~ 2012.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초빙교수
- 2009. ~ 현재 나남수목원 이사장
- 2006 ~ 2007. 방송통신융합추진위 위원
- 2001. ~ 현재 지훈상 운영위원장
- 1999 ~ 2000. 한국언론학회 이사
- 1988 ~ 2004. 계간 사회비평 발행인
- 1988 ~ 2003. 대한출판문화협회 이사
- 1979. ~ 현재 나남출판 대표이사·회장

조상호 회장이 1979년 설립한 나남출판사는 "나남의 책은 쉽게 팔리지 않고 오래 팔립니다"와 "나남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듭니다"라는 신념을 지키며 3천여 종의 양서를 간행하였고, 국내 굴지의 출판사로 자리잡았다.

나남출판사는 한국어로 된 전문학술서가 부족했던 1980년대, '나남신서' 시리즈를 출간해 언론·신문·방송·광고 등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대학교육에 걸맞은 전공서적 500여 권을 선도적으로 제공했다. 1990년대에는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와 함께 사회복지학 전문서적을 기획·출간해 100여 종의 '사회복지총서'를 출판함으로써 국내 사회복지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전문지식을 교육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나남출판사는 인문·문학 분야에서도 양서를 꾸준히 펴냈다. 박경리 작가의 '토지'·'김약국의 딸들'을 발행하여 독서열풍을 일으켰고 '나남문학선', '나남창작선', '나남시선' 시리즈를 통해 한국 문학계의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출판했다. 이에 더해 정기간행물 '사회비평'과 '포에지' 발행, '계간 사상'과 '언론과 사회' 제작·출판하여 국내 작가, 지성인, 학자들이 창작·비평·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국내 저자뿐만 아니라 막스 베버('직업으로서 학문', '직업으로서 정치'), 미셸 푸코('감시와 처벌', '성의 역사', '광기의 역사'), 위르겐 하버마스('의사소통행위론', '공론장의 구조변동', '탈형이상학적 사고') 등 세계적 사상가들의 주요 저작의 번역서도 펴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학술명저번역총서'로 200여 종(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윌리엄 오캄의 '논리학대전', 피에르 노라의 '기억의 장소', 로베르트 무질의 '특성 없는 남자',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세네카의 '비극전집' 등)의 명저를 출판했다.

한국인이 사표로 삼을 만한 우리 사회의 큰 인물들의 성취를 배울 수 있는 책을 출간하는 것도 출판사의 사명 중 하나로 삼아 김준업 회고록 '장정', '조지훈 전집', '백범 김구 전집'을 펴냈다. 특히 조지훈 선생의 고결한 뜻을 계승해 전통과 창조, 지식과 행동의 균형을 새롭게 성취하기 위해 '지훈상'을 제정, 2001년부터 매년 선생의 정신을 잇는 이들을 찾아 '지훈문학상'과 '지훈국학상'을 시상하였다.

조상호 회장은 나남출판사를 통해 지성을 나누며 사람을 키우는 일을 45년간 해왔다. 15년 전부터는 경기도 포천에 20만 평 나남수목원을 설립해 반송 3천 그루, 자작나무 10만 그루 등 나무를 가꾸며 아름다운 숲을 일구었고, 수목원 안에 45년간 만든 책들을 담은 공간으로 책박물관을 만들었다.

창조혁신부문 - ①



» 우영미
솔리드 대표

WOORYOUNGMI SOLID
PARIS HOMME

- 2023. 파리 생토노레 지역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 2018 ~ 2019. S/S 헤라 서울패션위크 명예 디자이너 선정
- 2016. 제 4회 매일경제 LUXEMEN 기업인상 수상
- 2014. 한국인 최초 Business of Fashion (BoF) 2014년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패션 인물 500인 선정
- 2013. 파리 마레 지역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 2012. 서울 MANMADE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WOORYOUNGMI X ARTIST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시작
- 2011.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 'La Chambre Syndicale de la Mode Masculine' (파리의상조합) 정회원 자격 취득
- 2002. 남성복 브랜드 WOORYOUNGMI 런칭 및 파리 컬렉션 시작
- 1988. 남성복 브랜드 SOLID HOMME 런칭
- 1983. 오사카 국제 패션 어워드 3위 입상
- 1982. 서울 성균관 대학교 의상학과 졸업

1. 한국 패션의 세계적 위상 확립

우영미(Woo Young Mi)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로서, 그녀의 작품은 단순히 의류 디자인을 넘어 패션 산업 전반에 걸친 가치 창조와 혁신을 이끌어낸 상징적인 업적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한국 최초로 파리 패션 위크에 정식으로 초청받은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 글로벌 패션계에서 한국 패션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 데 기여했습니다.

2. 한국 남성복 디자인의 혁신

우영미는 1988년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론칭하며 한국 남성복 시장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당시 남성복은 보수적인 디자인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녀는 기존의 틀을 깨고 정교한 실루엣, 세련된 디테일, 고급스러운 소재를 활용하여 현대적인 남성복 스타일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한국 패션 시장에서 많은 소비자의 사랑을 받으며, 남성복 디자인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3. 젠더리스 패션 트렌드 선도

특히, 그녀의 브랜드는 우영미는 "젠더리스(genderless)"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며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허무는 디자인을 통해 현대적인 패션의 가능성을 확장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스타일 변화를 넘어 패션이 가진 사회적 메시지와 철학을 대중과 소통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4. K-CULTURE와 K-FASHION의 선구자

우영미의 헌신과 혁신은 단순히 패션 디자인에 그치지 않고, 음악과 영화에서 시작된 K-CULTURE가 세계적으로 자리 잡는 흐름 속에서 K-FASHION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영미는 글로벌 브랜드와 리테일러와의 협업을 통해 한국 패션의 가치를 세계 무대에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녀의 브랜드는 세계적인 편집숍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파리, 뉴욕, 런던 등 주요 도시에서 판매되기 시작하며,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의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그녀의 작업은 지금도 전 세계 패션계에 영감을 주며, K-CULTURE의 또 다른 축으로서 K-FASHION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와 같은 존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조혁신부문 - ②



» 최재빈
넥스트온 대표

NEXTON
CARING FOR YOU & EARTH

-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상(농림축산식품부)
- 2020. 대한민국 CEO리더십 대상(산업통상자원부)
- 2018. ~ 현재 세계 최대 식물공장 운영
- 2017. 넥스트온 설립(CEO)
- 2015 ~ 2016. 포스코LED | M&A 및 대표이사
- 2000 ~ 2013. 서울반도체 | 대리~사장
- 1993 ~ 2000. 노틸러스 효성 | SI개발팀장

넥스트온의 최재빈 창업자는 LED반도체 제조업 및 IT 전문가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농업의 혁신을 통해 농업의 산업화 추진과 ESG기반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자원 부족 등 인류가 직면한 글로벌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새로운 농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농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넥스트온은 AI 등 IT기술을 접목하여 농작물의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계절에 관계없이 우수한 농작물을 연중 공급할 수 있는 고도화된 스마트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산업화가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넥스트온의 스마트팜은 터널, 폐광지역, 지하 철역 등의 유휴 공간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신규 건축물 건설에 따른 또다른 환경파괴의 발생과 자원소비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기술로 농약 없이 작물을 재배하며, 농작물 재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근거리 고효율 농산업으로 물류 과정의 탄소배출을 극소화하는 순환형 농산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 기존농업 위기 타개 및 새로운 기회 제공

기존 농업은 고령화, 농생산기술의 더딘 발전, 도심과 원거리 생활권으로 인한 인력수급 한계, 막대한 탄소배출과 수자원 사용, 기후에 의존된 불규칙한 생산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유통업체들에 의해 좌우되는 불확실한 시장 판로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와 같은 문제들로 젊고 유능한 신규인력 유입 감소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의 농업에 첨단CT 기술과 제조업의 노하우가 결합된 넥스트온의 스마트팜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사업모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청년층과 신페러다임의 농산업 희망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도시 인근지역의 유휴 건물 등에 근거리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면적효율을 극대화 한 단위별 스마트팜을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건강하고 안전한 고품질 먹거리 제공

넥스트온의 스마트팜은 농약과 병충해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환경에서 생육되어, 소비자들에게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연중 생산, 당일 수확·배송체계를 갖춘 생산기지에서 출하되는 국내 유일 고 품질 딸기 및 신선한 샐러드, 허브 등의 과채류를 시작으로 재배 작물의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365일 내내 생산 출하되고 있는 고품질의 딸기는 재배 과정에 대한 신뢰, 품질의 우수성으로 인해 소비자 만족도가 높습니다.

4. 글로벌 환경 개선 및 자연 복원

최재빈 창업자는 식량 생산의 10%만 실내 농업으로 전환해도 전 세계 880,600km²(대한민국의 약 8.8배 크기)의 농지를 숲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글로벌 환경 개선과 자연 복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넥스트온은 스마트팜 운영을 통해 토양 침식과 산림 훼손 문제를 줄이고, 오염에 노출되지 않은 새로운 농산업 방식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실현합니다.

최재빈 창업자는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소프트웨어의 파워를 기반으로 해결하며 농업을 새로운 디지털산업으로 포지셔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계로부터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를 열기 위한 중요한 행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생지속부문 - ①



» 김기용 애그리치글로벌 회장



- 2020. 12. 우당이회영선생교육문화재단주관 '영석상' 수상
- 2014. 09. ~ 현재 (주)애그리치글로벌 대표이사/회장
- 2013. 07. ~ 현재 (사)한국 4H본부 특별고문 및 글로벌 4H네트워크 이사
- 2011. 04. ~ 현재 (재)글로벌비전네트워크 이사장
- 2012. 10. 이전 전 카길 한국대표 전 (주)카길애그리퓨리나 회장 및 명예회장 전 카길 동물사료 북아시아지구 총괄 전 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 이사장(1997년 설립)
- 2002. 06. 한국농협협회주관 '올해의 경쟁자상' 수상

김기용 대표이사는 애그리치글로벌의 설립자이자 리더로 동물 영양 분야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으로 사료회사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애그리치글로벌은 농·수·축산사료 부문에서 공유가치를 창출하여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1년에 창립되었으며, 2015년부터 중국 시장과 파키스탄, 베트남에 진출하여 15개의 공장을 운영하며 비전과 가치 공동체를 만들어 회사를 가치 중심으로 경영하는 지난 13년 동안 빠르게 성장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애그리치글로벌은 회사 창립과 함께 2011년 축산환경과 청소년인성교육지원을 위해 설립된 사회공헌재단인 재단법인 글로벌비전네트워크(GVN)에 세전 수익의 3%를 재단에 후원해오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글로벌비전네트워크는 섬김과 나눔, 환경 우선, 리더십, 다양성 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재능을 기부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개인 또는 팀으로부터의 공헌, 기업으로부터의 공동 사회공헌 협약 (매출액 또는 수익의 일부 기부), 그리고 NGO 또는 공동 비전을 가진 파트너와의 협력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촌과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사업 지원으로 환경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대상은 축산 분뇨처리 등 축산 환경 개선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인사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2011년 제1회 환경대상시상식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하여 2024년 제 12회 환경대상을 시상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 인재, 결손가정, 특기생, 기타 학생들을 선발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물론 지역 및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장학박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20명의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셋째,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또는 향후 글로벌 인재가 될 국내대학 재학 한국 국민 중, 축산 관련 전공자이며 장래 국가와 사회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ARG(애그리치글로벌)장학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단과 같은 비전과 가치를 지닌 개인, 기업 또는 청소년 단체와 다양한 협업과 후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4-H/ 한국 4-H, (사)에코나우, NEI(Nutrition & Education Institute), 클린콘텐츠 국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청소년 환경 지원, 아시아/ 아프리카 청소년 개발 및 교육 지원, 희망의 씨앗 프로그램 후원, 인성포럼 클린콘텐츠 정직 UCC 공모전 전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대표이사는 2015년에 애그리치글로벌 2025년 비전을 임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지속적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으며 좋은 후계자를 양성하여 아시아 각국과 미국, 유럽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 소유가 아닌 공유의 가치로 사업을 통하여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고귀한 사업 목적을 이루어 가며 100년 기업의 기초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생지속부문 - ②



» 박종복 SC제일은행 은행장



- 2024. 01. 다산금융상 금상
- 2022 ~ 2023. 한국 ESG 기준명예기업 선정
- 2021. 07. 한국의 소비자대상 디지털 자산관리 부분 대상
- 2021. 01.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대상 금융위원장상
- 2019. 11. 자금세탁방지 모범 공로 대통령 표
- 2019. 06. 매경이코노미 선정 대한민국 100대 CEO
- 2017. 12. 대한민국 금융대상 올해의 금융인상
- 2017. 10.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5. 01. SC제일은행 은행장 / SC증권 이사회 의장
- 1979. 08. 제일은행 입행
- 1979. 02.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은 스탠다드차타드(SC) 그룹이 2005년 제일은행을 인수한 후 2015년 선임된 유일한 한국인 은행 장으로 SC제일은행이 '제일'이라는 토종 브랜드의 정통성을 계승하면서 국내 유일무이의 글로벌 하이브리드 은행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이와 동시에 현직 은행장 중 4연임에 성공해 10년째 은행장 임기를 이어온 최장수 은행장 이며 "New Bank New Start" 슬로건과 함께10년의 혁신을 통해서 100년 기업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

SC제일은행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역 사회와 오래도록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은 모기업 SC그룹의 브랜드 약속 'Here for good'을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으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Never settle)', '함께 하면 더 좋다(Better together)', '올바른 행동을 한다(Do the right thing)'라는 세 가지 가치 있는 행동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기업

SC제일은행은 미래를 이끌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경제적 포용을 목표로 다각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은행의 매칭 기부를 실천하고 있으며, '퓨처메이커스 (Futuremakers by Standardchartered)'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 내 청년들의 사회 불평등 해소와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미래를 이끌 다음 세대인 청년들의 배움/ 자립/성장을 지원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SC제일은행은 지역사회공헌 전략의 핵심인 임직원 자원봉사를 사내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5년 연속 전체 임직원의 80% 이상이 자발적으로 환경보호 및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배구조 분야에서 SC제일은행은 2019년도 이래로 6년 연속 A+등급을 부여 받은 유일한 회사이다. 시중은행 최초로 2년 연속(2020년, 2021년) 지배구조 우수기업 단독 대상을 수상했고, 한국ESG기준원이 지배구조 평가를 실시한 이래 역대 최초로 2년 연속(2022년, 2023년) 지배구조 명예기업에 선정되며 모범적인 지배구조 체계와 바람직한 ESG경영 문화를 선도적으로 확립하고 굳건히 유지하는ESG 리딩뱅크로 인정받고 있다.

사회공헌부문 - ①



» 윤기 사회복지법인 윤학자공생재단 회장



사회복지법인 윤학자공생재단

- 202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고문
- 2016. 05. 전주대학교 명예사회복지학 박사
- 2012. 「유엔세계고아의 날」제정 추진 2025년 통과목표
- 2005. 02. 강남대학교 명예사회복지학 박사
- 1995. 한일합동영화「사랑의 묵시록」제작
- 1992. ~ 2014. 한국의 대학생종사자대상 국제 사회복지연수실시
- 1989. 재일한국인고령자시설「고향의 집」준공
- 1988.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회협회장 일본 사회복지법인「마음의 가족」설립, 이사장
- 1984. 재일 한국노인홈 만드는일 제창 추진위원
- 1982. 공생복지재단 도쿄사무소 개설
- 1978. 서울종합직업훈련원 원장
- 1977. 사회복지법인 공생복지재단 이사장
- 1968. 사회복지법인 목포공생원 원장
- 1966. 중앙신학교(現강남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졸업

1. 윤기회장은 선천으로부터 보고 배운대로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사회(共生)”를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기독교 정신에서 비롯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이 땅에 버려진 고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양육과 교육, 그리고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는 사회복지사업에 평생을 헌신하여 오셨습니다.

2. 윤기회장은 사회복지학 전공 전문사회복지사로서 선천이 설립한 목포공생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여 평생 동안 아동, 장애인, 청소년, 노숙인을 위한 전문사회복지시설로 발전시켜 오셨습니다. 고아의 양육에서 시작한 아동복지사업은 연장아들의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는 직업교육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게 되었고, 장애가 있는 고아들에게는 장애인직업재활원을 세워 그들 나름대로 재활의 꿈을 실현하도록 시설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또한 의지할 곳이 없는 노숙인들 위해 생활시설을 설립하여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3. 윤기회장은 외로운 재일고령자들의 노후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에게 고향의 정서가 깃든 양로시설의 필요성을 주장하시어 한일양국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일본에서 사회복지법인인 「마음의 가족」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법인은 순차적으로 사카이, 오사카, 고베, 교토, 도쿄 등 일본 5대 도시에 재일한일고령자 종합복지시설「고향의 집」을 세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기회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철학과 시설 운영방식을 배우고자 하는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국제 연수와 학술교류의 장을 만들어 국제 사회복지실천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또한 지구촌에 전쟁과 생활고 등으로 인해 내버려지는 고아를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뜻에서 UN세계고아의 날 제정을 주창하고 이를 관철하고자 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오고 있습니다. 윤기회장의 국적을 초월한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한일양국의 우호와 평화 증진 노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 윤기회장은 참다운 복지는 모든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이 제고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 땅의 선한 뜻을 확산하기 위한 문화운동에도 앞장 서셨습니다. 그는 국적을 초월한 사랑의 실천사례를 영화화하고, 복지마인드를 가진 문화예술인들의 재능나눔으로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사회공헌부문 - ②



»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



- 1971. ~ 현재 사단법인 한국해사산업연구소 이사장
(주)해사산업정보사 대표이사
(주)한국해사기술
- 2023. 협성사회공헌상 - 협성문화재단
대한민국 경제발전 및 조선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
- 2019. 명예공학박사 학위 - 부산대학교
한국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
명문 장수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 2013. Lifetime Achievement Award -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
근대 조선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
- 2010. 3.1 문화상 - 상일문화재단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 2009. 우암상 - 대한조선학회
한국조선산업발전에 기여
- 1995. 은탑산업훈장 - 대한민국 정부
해양산업 및 과학기술 발전 기여
- 1973. 대한조선공사 해외사업담당 사장
- 1965 ~ 1971. 대통령 초대경제수석비서관/
해사행정 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
경제과학심의회의 상임위원 겸
사무총장

일찍이 조선임국의 희망을 품고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한 후 세계 최고의 조선기술자를 목표로 당시 유럽 최고로 꼽히던 스웨덴 코쿰스 조선소에 설계 엔지니어로 입사하였으며, 이후 영국 Lloyd 및 미국 ABS 국제선급협회의 한국인 최초 국제선박검사관으로 근무하는 등 우리나라의 조선공학의 태동기에 선각자로서의 길을 걸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제안으로 우리나라 초대경제수석으로 재임하면서 과학기술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 과학 기술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인 KIST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초기 실력있는 과학자들을 직접 유치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또한 더 이상 해외기술의 도입이 아니라 우리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지로 대덕연구단지의 제1호 연구소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KRISO) 설립의 산파 역할을 시작으로 대덕연구단지 건설을 주도하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가 기틀을 마련한 KIST는 거의 60년을 바라보고 있으며, 대덕연구단지는 50년을 맞이하며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연구기관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도 참여,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집약적인 조선산업의 중요성을 인식, ‘조선산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정책에 반영하여 기술이 전혀 없던 국내 조선산업 환경에서 신속하게 선진국의 최신 기술들을 도입하여 국내 최초로 선박 건조와 좌초된 배들의 수리를 성공시켰으며 1969년부터는 국내 최초 민간 선박 기술 용역회사인 한국해사기술(KOMAC)을 설립하여 쇄빙선, 심해탐사선, 핵폐기물 운반선, 친환경 선박 등 2000여 종이 넘는 각종 선박을 설계하고 감리하며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의 조선 국가가 되는데 기술적 공헌을 하며 대한민국을 조선강국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신동식 회장은 한국 근대발전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근대 조선산업 발전의 산 증인이자 조선산업의 선각자로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평생을 나라를 위해 애국심 하나로 큰 일들을 끊임없이 추진해 온 그는 92세의 나이에도 지금도 남다른 애국심과 창의력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세계를 누비며 신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런 그의 모습은 국내외 조선업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되고 있다.



» 송창근
KMK글로벌스포츠그룹 회장



- (現) KMK group 회장 (종업원 35,000 명)
- Nike, Converse, Off-white 등 세계 우수 브랜드 신발 생산 및 내수 1위 브랜드인 Eagle 운영
- (전) 제 14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
KOFA (재인니 한국 신발 협의회) 1, 2대 회장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3, 4, 5대 회장
- 2023. 대한 민국 국민 훈장 (무궁화장)
- 2011. 대한 민국 국민 훈장 (석류장)
- 2001. 대한 민국 국민 포장 (김대중 대통령)
- 1998. 인니 대통령 표창

한인 기업인으로서 이미지 고취 및 국위선양에 힘쓰

PT. KMK GLOBAL SPORTS는 1989년 인도네시아에 KMJ로 설립된 이래 약 33년간 글로벌 스포츠 신발 제조업 체로 무한한 혁신과 개혁을 통해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내부적으로는 인간 중심 경영(Human Touch Management/HTM)를 실천하는 기업. 기업을 운영하며 가장 중요시 하는 것과 최고의 자산은 바로 사람으로, 직원을 먼저 생각하는 HTM 철학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애사심 상승을 비롯하여 상호 신뢰가 견고해지며 낮은 이직률을 자랑함.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 조성에 앞장서며 자연스럽게 한인 기업인에 대한 호감을 높이고 긍정적이며 진취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켜 인도네시아인들의 한인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함.

2. 격주로 직원의 고향 가정 방문 행사(Kampung Vist)를 진행하여,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친목을 도모함과 동시에 마을 발전 기금을 전달하고, 무너진 집수리와 고아를 비롯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한 봉사에 힘쓰. 직원과 그의 가족을 위해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내 병원, 종합 복지관 등을 운영하는 등 세심한 배려로 2007년과 2012년 인도네시아 여성 근로자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로 선정되어 인도네시아 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국위선양에 앞장섬. PT. SELALU CINTA INDONESIA(항상 인도네시아를 사랑합니다)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이 외국인인 사랑합니다라는 기업을 설립한 것에 감명을 받아 감사의 인사를 전함.

3. 인도네시아 신발산업의 중심 역할을 해오고 있는 KMK를 세계적인 스포츠 신발 제조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이바지하였으며 2006년 인도네시아 자체 스포츠 신발 브랜드인 이글(Eagle)을 인수하여 인도네시아 내수시장 선두 브랜드로 성장 및 변모시키며 인도네시아 신발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모범기업으로 성장함. 또한, 2015년 5월 이글 운동화가 동남아시아 게임 인도네시아 대표 선수단의 공식 메인 스폰서로 선정되어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한인 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킴.



» 유신일
한국산업양행 회장



- 2018. 미국 우드랜치 컨트리 클럽 인수를 시작으로 PGA West를 비롯해 15개소 인수 운영
- 2015. 골프 업계 최초 지방세 법인 우수납세자 표창
- 2013. 야마하 골프카 역대 최대 판매 실적 달성 기념패 수상
- 2003. 일본 치바현 소재 요네하라 골프 클럽 외 현재 8개소 인수 운영
- 1992. 일본 HATSUTA KAKUSANKI CO., LTD 한국 대리점 계약
일본 YAMAHA MOTOR CO., LTD 한국 대리점 계약
- 1990. 일본 KYOEISHA CO.,LTD(바로네스) 한국 대리점 계약
- 1988. 주식회사 한국산업양행 설립

유신일 회장은 K골프의 진정한 프런티어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유신일 회장이 경영하는 한국산업양행은 1988년 야마하 골프 카트와 바로네스, 하츠타 등의 골프 코스 관리 장비로 사업을 시작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골프 장비 유통 기업이다.

설립 이후 30년 이상의 운영 노하우를 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접목해 2003년부터 일본 치바현 소재 요네하라 골프 클럽을 시작으로 일본에서 8개 골프장을 인수 운영 중이며, 인수 후 불과 2~3년 내에 흑자로 전환시키면서 해외투자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18년부터는 미국 우드랜치 컨트리 클럽 인수를 시작으로 '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열리는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명문 골프장 PGA West를 비롯해 15개의 골프장을 인수하면서 미국 골프업계에도 큰 파란을 일으키며 인지도를 높였다.

유신일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골프장들이 폐쇄되는 상황에서도 직원 해고 없이 운영을 지속하였으며, 섣달은 당시에는 클럽하우스와 코스 일부를 리노베이션하는 등 시설 투자까지 단행해 다시금 화제가 되었다. 결국, 코로나19는 유레없는 골프장 호황이라는 전화위복이 되어 유신일 회장의 결정이 먼 미래를 내다본 혜안임을 입증했다.

코로나 초창기에는 대부분의 골프장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 위탁 운영을 맡긴 파트너사인 센추리 골프파트너스·아메리칸 골프사는 미국 노동법을 근거로 직원들 대부분을 해고했다. 유신일 회장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오너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으니 곧바로 복귀시키라고 요청했다. 당시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 불안했지만, 직원들을 그렇게 보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주일만에 복직한 직원들은 지금은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오너로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직원은 물론 회원들을 짊어지고 가겠다는 이러한 '책임감'은 미국 골프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는 유신일 회장이 추구하는 3S(Member Satisfaction, Employee Satisfaction, Owner Satisfaction)이며, 골프장 회원과 골프장 직원 그리고 골프장 사업주가 만족하는 경영을 추구한다는 의미와 직결된다.

유신일 회장은 그동안 해온 비즈니스의 상당 부분은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감동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이 행복하고, 직원들이 행복해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행복을 위한 골프장 만들기에 매진해 온 유신일 회장이 사회공헌 활동에도 소홀할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유신일 회장은 골프장을 통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몇몇의 오프너들과 함께 '주니어 육성'이라는 뜻을 모아 일본 모치에 선수 육성을 위한 골프장을 꾸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투어를 뛰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PGA West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으며, 유신일 회장은 골프를 통한 사회 공헌의 첫발을 유소년 골퍼 육성을 위한 인프라로 삼겠다는 또 다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

- 2024. 01. 제19대 전북특별자치도지사(현)
- 2022. 08. 제16대·17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현)
- 2022. 07. ~ 2024. 01. 제36대 전라북도지사
- 2018 ~ 2019.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2016 ~ 2020. 제20대 국회의원(군산시)
- 2014.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비서실장
- 2013 ~ 2014. 민주당 수석대변인
- 2012 ~ 2016. 제19대 국회의원(군산시)
- 2002 ~ 2011. 김앤장 변호사, 공인회계사
- 2002. 사법연수원 수료(31기)
- 1999. 사법시험 합격(41회)
- 1993. ~ 2000. 경제기획원 재정경제부 사무관
- 1992.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36회)
- 198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23회)

전라북도는 올해 1월 18일 128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궁극적 목표는 민생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있다. 함께 웃고 함께 꿈꾸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민생이다. 그렇기에 도정의 출발은 민생에서 시작되었고, 도정의 끝도 민생을 향했다.

① 13조원 기업유치 6개 대기업 유치

경제의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기업이다.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지역 경제가 돌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유치를 위해 발로 뛰며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고 친기업 정책을 펼친 결과, 약 2년만에 13조원 기업유치, 6개 대기업유치 성과를 이뤄냈다.

② 4+1 전성기(전북에서 성공하는 기업들을 위하여) 정책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성장을 아낌없이 지원코자 새로운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4가지 정책이 바로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환경단속 사전예고제, 노사 상생협력', 마지막 '+1'은 바로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이다.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삼성전자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도내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을 지원하며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국가 브랜드 대상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상'을 수상했다.

③ 1조 벤처펀드 프로젝트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북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1조 벤처펀드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이 프로젝트는 1조원의 벤처펀드를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기업에게 투자하도록 하고 이렇게 뿌려진 씨앗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혁신적인 도전이었고, 지역에 있는 선배 기업들도 합심하여 후배기업들을 도왔다. 2년만에 신규 벤처펀드 6개 분야 5,006억원을 결성했고, 이를 위해서 440억원을 출자했다. 그 결과, 전국의 창업기업 증가율이 6%로 감소한 반면 전북의 창업기업은 5.2%의 증가율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④ 전국 최초 민생 특별대책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 4월에 '다함께 민생살리기' 민생 특별대책이 완성되었다. 민생 특별대책으로 3개 분야, 65개 사업, 4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어루만지는 한줄기 빛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⑤ 전북형 저출생 대책

지방은 청년 유출과 인구절벽, 지역 소멸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저출생 추세를 돌리기 위해 지난 11월 전북형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으로 4개 분야, 71개 사업에 1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어 청년들의 불안을 덜고 결혼과 자녀를 통한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혁신과 경제성장 그리고 이를 대한민국의 미래로 이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다.



» 문훈숙
유니버설발레단 단장



- 2019. 한국무용협회 예술대상 수상
- 2018. 제67회 서울시문화상 수상
- 2017. 문화체육관광부 제36회 세종문화상 수상
- 2015. 세계무용연맹 특별상 수상
- 2014. (사)여성문화네트워크 올해의 여성 문화인상 수상
- 2012. 국제공연예술협회(ISPA) 최고 경영자상 수상 제1회 강동아트센터 어워즈 <예술가 상> 수상
- 2011. 11 경암문화재단 수여 <경암학술상 예술부문> 수상
- 2010. 10 화관문화훈장 수상
- 2009. 한국발레협회 대상 수상
- 2007. ~ 현재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
- 2004. ~ 현재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위원

문훈숙 단장은 한국 발레의 발전과 세계화에 헌신해 온 대표적인 예술가이자 경영자입니다. 선화예술중학교 3학년 재학 중 영국 로열발레학교 오디션에 합격하여 어퍼 스쿨을 졸업하고, 모나코 왕립발레학교에서 세계적인 발레 교육자인 마리카 베소브라스바를 사사하였습니다. 이후 미국 워싱턴발레단에서 활동하며 국제적 무대 경험을 쌓았고, 1984년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직업 발레단인 유니버설발레단 창단 멤버로 합류해 프리마 발레리나로서 750회 이상의 국내외 공연을 펼쳤습니다. 평론가들은 그녀를 '춤추는 동양의 진주', '황색 요정', '지적인 발레리나'로 찬사했으며, 김경애 무용평론가는 "문훈숙 춤의 특징은 우아함"이라고 극찬했습니다.

1989년 문훈숙 단장은 아시아인 최초로 러시아 마린스키 극장 무대에 올라 키로프 발레단과 <지젤>을 공연하며 일곱 차례의 커튼콜을 받아 큰 주목을 받았고, 이후 <백조의 호수>, <돈키호테> 에서 객원 주역으로 활약하며 세계 발레계에서 그녀의 이름을 각인시킵니다. 마린스키 극장 240년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인 주역 발레리나로 기록된 그녀의 업적은 한국 발레의 자부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1995년부터 수석 무용수와 단장을 겸임한 문훈숙 단장은 발레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에 힘쓰며 한 해 동안 MBC 문화방송 <이달의 예술가 상>,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장 문학적인 발레리나 상>, 한국발레협회의 <프리마 발레리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경영 일선에 나서면서 예술적 완성도를 추구하는 다양한 작품을 기획하며 고전 발레, 컨템포러리 발레, 드라마 발레를 아우르는 레퍼토리 확장을 통해 한국 발레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특히, 2009년 존 크랑코의 <오네긴>, 2012년 케네스 맥밀란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공연권을 국내 단체 최초로 획득해 성황리에 무대에 올렸고, 2014년에는 나초 두아토의 현대 발레 <멀티플리시티>를 국내 최초로 공연하며 한국 발레의 레퍼토리를 확장했습니다. 또한, 낭만 발레 <지젤>을 새롭게 해석한 <그림 머피의 지젤>을 세계 초연으로 선보이며 창작 발레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녀는 <심청>, <발레 춘향> 등 한국적 색채를 담은 창작 발레를 해외에 소개하며 '발레 한류'를 개척하였으며, 2012년에는 <백조의 호수>를 한국-남아프리카공화국 수교 20주년으로 선보이며 문화 외교의 새로운 사례를 남겼습니다. 2019년 프랑스 파리 팔레 데 콩그레에서는 <백조의 호수>로 4회 12,000석 매진을 기록하며 한국 발레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문훈숙 단장은 발레 영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2015년 유니버설발레단 주니어컴퍼니를 설립하고 무상 교육을 제공해왔으며, 이들은 'YAGP', '프리 드 로잔' 등 국제 콩쿠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며 한국 발레의 미래를 밝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자선 공연, 객석 나눔, 찾아가는 발레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외계층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더 발레리나>, <코리아 이모션 정(情)> 등의 창작 작품을 선보이며 한국 발레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훈숙 단장은 한국 발레 발전을 이끌어가는 선구자로서, 예술과 사회적 책임을 조화롭게 실천하며 한국 발레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별상



» 허영만 화백

- 2022. 보관문화훈장
- 2014. 10. 서울 김장문화제 홍보대사
- 2013. 0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명예홍보대사
- 2009. 03. 경기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 홍보대사
- 2009. 자랑스러운 전남인상
- 2008. 제9회 대한민국 국회대상 만화 애니메이션 부문
- 2007. 04. 한국철도공사 KTX 홍보대사
- 2007. 03. 여수세계박람회 명예홍보대사
- 2007. 제7회 고바우 만화상
- 2004. 제7회 부천국제만화축제 만화대상

한국 만화계의 거장, 발자취

허영만 화백은 한국 만화계의 산 역사로 불리며, 50년 이상 작품 활동에 몰두하며 대중과 소통해 왔다. 1974년 한국일보 신인만화공모전에서 당선되어 만화계에 입문했으며, 이후 《각시탈》, 《타짜》, 《식객》, 《날아라 슈퍼보드》 등 한국 만화사의 전설로 남을 다양한 작품을 창작하며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대중과 함께한 시대를 반영한 작품들

작품을 통해 단순히 오락적 요소를 넘어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냈다. 《각시탈》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독립운동가의 투쟁을 그리며 한국인의 민족적 자긍심을 자극했고, 《타짜》는 인간 욕망의 본질을 탐구하는 독창적인 서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또한 《식객》을 통해 한국 음식 문화를 깊이 있게 탐구하며, 지역적이고 전통적인 음식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했다.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철저한 자료조사

작품 제작에 있어 철저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현실감을 살려냈다. 《식객》 제작을 위해 한국 전역을 직접 탐방하며 음식을 경험하고 기록했으며, 이를 통해 만화를 예술적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화적, 사회적 도구로 활용했다. 세심한 접근은 독자들에게 단순한 읽을거리를 넘어선 학습적이고 감동적인 경험을 선사했다.

지속적인 도전과 변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웹툰 시대에 맞춰 새로운 플랫폼에서 작품을 선보이며 전통적인 종이 만화와 디지털 만화를 잇는 교량 역할을 수행했다. 최근에는 주식과 같은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주제를 만화에 녹여내며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한국 만화계에 미친 영향

단순히 작품 활동에 그치지 않고, 후배 양성과 산업 발전에도 기여했다. 문하생인 윤태호 작가(《미생》)를 비롯한 많은 후배 작가들이 그 영향 아래 성장하며 한국 만화의 저변을 확대했다.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멘토로서도 존경받았다.

인간경영의 가치 실현

작품 세계를 통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만화는 인물의 감정과 사회적 관계를 섬세하게 묘사하며 인간이 가진 복잡성과 아름다움을 탐구해왔다. 작업은 예술적 성취뿐만 아니라, 인간 중심의 경영 철학과도 맞닿아 있어 인간경영대상의 특별상 수상자로서의 가치를 더욱 빛내주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며 예술과 문화의 중심에서 항상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다. 그의 작품과 업적은 단순한 만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앞으로도 유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도전의 동기를 제공할 것이다.

HDI 인간경영대상 수상자(2021~2023)

제9회 HDI 인간경영대상



사회공헌부문	사회공헌부문	상생지속부문	상생지속부문	공로상
				
김상고 모아저축은행 대표이사	권혁빈 스마일게이트그룹희망스튜디오 이사장	김광석 엔케이에프엔씨 대표이사	박광범 메가젠임플란트 대표이사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재교육부문	인재교육부문	창조혁신부문	창조혁신부문	공로상
				
정운기 관세법인이에이원 회장	최진석 사단법인 새말새몸짓 이사장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창업자	권기연 설해원(雪海園) 부회장	장사익 음악인

제8회 HDI 인간경영대상



사회공헌부문	사회공헌부문	상생지속부문	상생지속부문	기술혁신부문	재외동포기업
					
권혁운 아이에스그룹 회장	조용근 (재)석성장학회 이사장	김태주 제스파 회장	이홍기 골드라인그룹 회장	김진석 유희 회장	김우재 무궁화유통그룹 회장
인재교육부문	인재교육부문	창조혁신부문	창조혁신부문	공로상	
					
박인주 제니엘 회장	이준우 파오스 회장	박한길 에터미 회장	최병오 패션형지그룹 회장	유장희 대한민국학술원 경제경영분과 회장	

제7회 HDI 인간경영대상



사회공헌부문	사회공헌부문	상생지속부문	상생지속부문	공로상
				
김준일 하나코비(株) 회장	김귀열 (주)슈퍼메이 회장	변주선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이병화 (주)에스텍시스템 회장	오종남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 이사장
인재교육부문	인재교육부문	창조혁신부문	창조혁신부문	지자체
				
노희욱 (주)훈 회장	노찬웅 영산대학교 성심학원 이사장	김영구 (주)엘림비엠에스 대표이사	이병진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회장	조광한 남양주시 시장

HDI 인간경영대상 수상자(2018~2020)

제6회 HDI 인간경영대상



사회공헌부문  서순희 단발드그룹 회장	사회공헌부문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주) 대표이사	상생지속부문  문주현 (주)엠디엠 회장	상생지속부문  유인욱 (주)제성 회장	공로상  이배용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인재교육부문  이종철 (주)시빅호텔 회장	인재교육부문  정해정 M.K 인터내셔널상사(주) 회장	창조혁신부문  강준기 (주)포머스 회장	창조혁신부문  전병직 (주)코리아나 회장	특별상  조은희 서초구 청장

제5회 HDI 인간경영대상



사회공헌부문  강태선 (주)블랙아크 회장	사회공헌부문  천석규 천일식품(주) 대표이사	상생지속부문  박병민 (주)성광기업 대표이사	상생지속부문  원재철 (주)자이언트네트웍그룹 회장	공로상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인재교육부문  이상원 크라운출판사 회장	인재교육부문  조현정 (주)비트컴퓨터 회장	창조혁신부문  박혜린 (주)홈시스템 회장	창조혁신부문  최창환 (주)장수산업 회장	특별상  류태호 태백시장

제4회 HDI 인간경영대상



사회공헌부문  백용기 거봉그룹 회장	사회공헌부문  노은하 파나소닉코리아(주) 대표이사	상생지속부문  김원길 바이네르(주) 대표이사	상생지속부문  이대성 (주)K55메운 대표이사	공로상  박호군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총장
인재교육부문  오석송 (주)메타바이오메드 회장	인재교육부문  유준식 (주)체리쉬 회장	창조혁신부문  임병훈 텔스타홈(주) 회장	창조혁신부문  한홍섭 쁘띠프랑스 회장	특별상  이승울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

HDI 인간경영대상 수상자(2015~2017)

제3회 HDI 인간경영대상



나눔봉사부문  김세문 (주)신일팜글라스 회장	가치창조부문  조태권 광주요 회장	인재경영부문  강윤선 준오헤어 대표이사	창조경영부문  박은관 시몬느 회장	사회소통부문  심규언 동해시장
상생경영부문  박성훈 (주)모간 회장	지속가능부문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이사	인재개발부문  이완섭 서산시장	혁신성장부문  박병중 고흥군수	특별상  박재갑 한국세포주연구재단 이사장

제2회 HDI 인간경영대상



상생경영부문  이윤수 KCTC 상임고문	사회복지부문  노현순 강서구청 청장	사회공헌부문  강국창 동국상선 회장	사회봉사부문  민남규 자강산업 회장	사회소통부문  유두석 전라남도 장성군 군수
인재경영부문  이병구 네패스 회장	인재교육부문  한재권 조인그룹 회장	인재개발부문  남유진 경상북도 구미시 시장	지속가능부문  최양식 경상북도 경주시 시장	특별상  심갑보 삼익THK 상임고문

제1회 HDI 인간경영대상



종합대상부문  구자관 삼구이앤씨 책임대표사원	상생경영부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사회공헌부문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회봉사부문  두상달 가정문화원 이사장	인재경영부문  이형우 마이다스아이티 대표이사
교육부문  김영철 동화세상애듀코 대표이사	특별상  김병일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			